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추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23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 당 자	• 생활보장팀장 채경선 ☎440-2931 • 담당자 주애경 ☎440-293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냉방비 70억 원 특별지원

- 여름철 취약계층 긴급대책 마련, 재해구호기금 활용해 현금지원 -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등 13만 1천여 가구에 5만원 씩 지원 -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20여 곳 20만원~100만원 씩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3만 1천여 가구와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20여 곳에 냉방비 70억 원을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냉방비 특별지원은 폭염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가구인 전체 13만 1천여 저소득 가구에는 5만 원씩, 총 65억 5천만 원을 7월 중 추가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냉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1,577곳 포함) 1,820여 곳에 20만 원 ~ 100만 원 까지 냉방비 4억 4천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냉방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업의 신속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본격적인 무더위 다가오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지원하게 됐다”며 “찜통더위와 부담스러운 냉방 요금으로 이중고를 겪을 취약계층들이 조금이나마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만 1천여 저소득 가구(차상위 포함)에 각 10만 원, 1,830여 개 사회복지시설(정부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 제외)에 각 60만 원 ~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